



유통가 채용시장 위축에 일자리 창출 앞장
니



Life

패션업계
인플루언서 마케팅
재가동
L2



의대 증원, 무전공 확대에 'N수생' 수능 응시 21년만에 최다

2025학년도 수능 52만명 지원 반수생 9만명 추정... 역대 최대 문과생 증가... '사탐런' 현상도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N수생' 18만여 명이 지원하면서 21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학에 다니면서 다시 입시에 도전하는 '반수생' 규모도 역대 최대 수준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6일까지 실시한 '2025학년도 수능 원서 접수'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N수생' 18만1893명... '반수생'도 최다
올해 수능에는 수험생 52만2670명이 지원해, 지난해보다 1만8082명(3.6%) 늘었다. 이중 고3 재학생이 34만777명으로 65.2%를 차지했으며, 졸업생



은 16만1784명(31.0%), 검정고시 합격생 등 수험생은 2만109명(3.8%)이다. 수능 원서를 접수한 고3 재학생 규모는 지난해와 견줘 1만4131명(4.3%) 늘어났다.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올해 고교 3학년이 태어난 2006년에 출생률이 소폭 늘었던 게 원인이다.

수능 응시 N수생 규모도 증가해 2004학년도 수능(19만8025명) 이후 21년 만에 가장 많았다. 올해 졸업생과 검정고시 응시자는 각각 지난해보다 2042명(1.3%), 1909명(10.5%) 늘어 총 18만1893명이다. 특히 검정고시 등 수험생은 수능을 치른 이후 30년 만에 처음으로 2만명을 넘었다.

올해는 의대 정원이 대폭 증원되고, 무전공(전공자유선택제)도 확대되면서 상위 대학으로 재진학하려는 반수생 등 N수생이 크게 늘 것으로 분석된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올해 대학에 재학하면서 수능에 참여하는 반수생 규모는 9만3195명으로 추정된다. 집계 가능한 2011학년도 이래 역대 최대 수준이다.

◆중하위권 수험생 사회탐구 응시자↑
'문과생' 규모는 늘어났다. '문과생'이 수학영역에서 주로 선택하는 '확률과 통계' 응시자는 23만3111명으로, 지원자(49만3279명)의 47.3%를 차지했다. 지난해(46.8%)보다 0.5%p 오른 수치다. 이과생들이 주로 선택하는 '미적분' 응시자는 24만4408명(49.5%)으로, 지난해 49.2% 대비 0.3%p 높아졌고, '기하'는 1만5760명(3.2%)으로 0.9%p 감소했다.

통합수능 이후 수학에서 이과생이 주

로 선택하는 '미적분·기하' 과목이 더 높은 표준점수를 받으며 '이과생'이 대입에서 유리한 결과를 보였고, 이에 따라 응시 규모도 '이과' 쪽으로 기울었지만, 올해는 양상이 다소 바뀐 모양새다.

사회탐구(사탐)만 응시하는 수험생은 26만1508명(51.8%)이었고 과학탐구(과탐)만 응시는 19만1034명(37.8%)였다. 과탐 단독 응시자는 '이과생'으로 간주하는데, 이 수가 지난해(47.8%)보다 4급(4만1932명이 감소)한 것이다.

입시계에선 과탐 학생들이 사탐과목으로 갈아타는 '사탐런' 현상으로 해석했다. 임성호 대표는 "이과 학생이 사탐으로 갈아타면 이런 경우는 대부분 중하위권대로 추정한다"라며 "상위권 대학에서는 자연계의 경우 과탐 과목에 가산점을 부여하기 때문에 사탐과목 선택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서울시, 추석연휴 비상 의료체계 가동 총력

오세훈 시장, 의료계와 진료대책 논의 연휴 때 병원·약국 1.2만곳 지정운영 응급의료기관, 응급실 24시간 가동

오세훈 서울시장의 추석 연휴 비상 의료체계 가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11일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6개 보건·의료협의체 단체장을 만나 '문·여는 병·의원, 약국'의 운영 등 추석 연휴 기간 응급의료 비상 진료 대책을 논의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오 시장은 "추석 연휴에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상 의료체계를 최대한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 시장은 경증 환자들에게 응급실 이용 자제를 당부했다. 오 시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 시청에서 열린 서울특별시 보건·의료협의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시스

"응급실은 정말 위급한 환자들을 위해 배려해야 한다"며 "조금만 더 서로 배려하고 협력한다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추석 연휴(9월 14~18일) 응급 환자에 대비해 24시간 응급의료 체

계를 구축하고, 경증 환자들이 쉽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문·여는 병·의원, 약국' 1만2000여곳을 지정·운영한다. 25개 자치구 보건소와 7개 시립병원은 '비상 진료반'을 가동한다.

추석 연휴 때 서울에서는 하루 평균 1184개소, 총 5922곳의 병·의원과 약국 6533개소(일 평균 1306곳)가 문을 연다.

서울시 내 응급의료기관과 종합병원 응급실은 추석 연휴에도 24시간 가동된다. 서울대학교병원 등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31개소를 포함해 총 69개 응급의료기관이 문을 연다.

25개 자치구의 모든 보건소가 추석 당일엔 정상 진료하며, 연휴 전후 4일은 각 권역에 전체 인력의 절반을 투입해 비상 진료받을 가동할 예정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hjk1@

"이제 기후동행카드 찍고 인천공항 가세요"

공항철도 인천공항역 하차 가능해져
출국 관광객 편의↑... 승차는 불가

서울시는 오는 13일부터 공항철도 인천공항역(T1·T2)에서 하차가 가능하도록 기후동행카드의 이용 범위를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는 관광객은 30일권과 단기권 등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해 공항철도를 타고 인천공항 T1역과 T2역에서 추가 요금 지불 없이 내릴 수 있게 된다. 기존 기후동행카드 가격을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서울에서 공항철도를 타고 무료로 인천공항까지 도착할 수 있다.

현재 서울역, 공덕역, 홍대입구역 등 시내 6개 공항철도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 승차 서비스는 가능한데, 지난 7월 1일 '관광객용 단기권'이 출시되면서 공항철도 인천공항역(T1·T2)에서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고 싶어하는 외국 관광객들의 요구가 많아 적용 범위를 넓혔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출국하는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공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인천공항역(T1·T2)의 경우 예외적으로 하차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인천공항역(T1·T2)에서 기후동행카드 승차는 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김현정 기자

경기도, 기초생계급여 추석 전 조기지급

제수용품 등 수급자 부담 줄여

경기도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9월 생계급여를 정기 지급일(20일)보다 7일 앞당겨 추석 전인 13일 조기지급한다.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매월 20일 지급하나 제수용품, 명절 선물 등 소비지출이 증가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수급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기지급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도는 생계급여 지급일 변경을 시군에 요청했고, 이를 위한 세부 일정도 시군에 통보하는 등 급여 지급

시스템 처리현황을 모니터링하며 시군과 협력하고 있다.

생계급여는 일상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해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것으로 가구의 소득과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기준중위소득 32% 이내면 지급 대상으로 선정되고 가구원 수에 따라 매월 차등 지급된다. 2024년 4인가구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월 183만 3천 572원이다. /경기=유진채 기자 yujin@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6:12 | 해질 / 18:45

9월 12일 (토)
음력 : 8월 10일

수도권 날씨
25~30°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지역예보: Kw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테니스 세계 1위' 신네르, 도핑 위반 징계 받나...WADA, 항소 가능성 제기
▲문체부, 체육단체 불공정 '임원 연임심의' 제도개선 권고 /사진 뉴스시스

▲'전체 1순위 키움행' 정현우 "구단 이름처럼, 히어로 될게요"
▲문체부, 배드민턴협회 '체육계 사유화' 지적...낯은 관행 뜯어고친다



▲'반등 신호탄' 김광현, '3연승' SSG 상승세 이어줄까
▲강타자 슈와버, 시즌 14번째 1회 선두 타자 홈런...MLB 신기록 /사진 뉴스시스

뉴스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